



각국 선수들 광주서 스피드 대결 6일 광주시 서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9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경기대회' 여자100m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투·타 하모니... KIA 4연패 탈출

16안타 대폭발...두산에 12-3 양현종, 7이닝 2실점 시즌 5승 이명기·박찬호·이창진 3안타 베테랑 빈자리 영건들 맹활약



'병살'과 '흡린' 구호가 엇갈렸던 7회초 1사 만루가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KIA 타이거즈가 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시즌 9차전에서 12-3로 이기며 4연패에서 벗어났다. '에이스' 양현종이 연패 탈출이라는 임무를 맡고 출격했던 이날 KIA의 '신에 선수'들이 공격 지원에 나섰다. 특히 박찬호가 사이클링 히트에 흡린 하나가 부족했던 3안타를 기록했고, 이창진과 이명기도 각각 3안타로 2타점을 수확했다. 안치홍과 김주찬이 각각 등 통증과 피로 누적으로 빠지면서 신에들로 내아가 꾸려졌다. 이날 KIA는 최원준-박찬호를 테이블 세터로 해 류승현을 3번 타자 겸 1루수로 배치했다. 최원준이 3루수, 박찬호가 유격수로 자리를 했고 김선빈이 2루로 자리를 옮겼다. 전날 안타 없이 침묵했던 박찬호가 첫 타석에서 KIA 공격의 불씨를 당겼다.



이명기



박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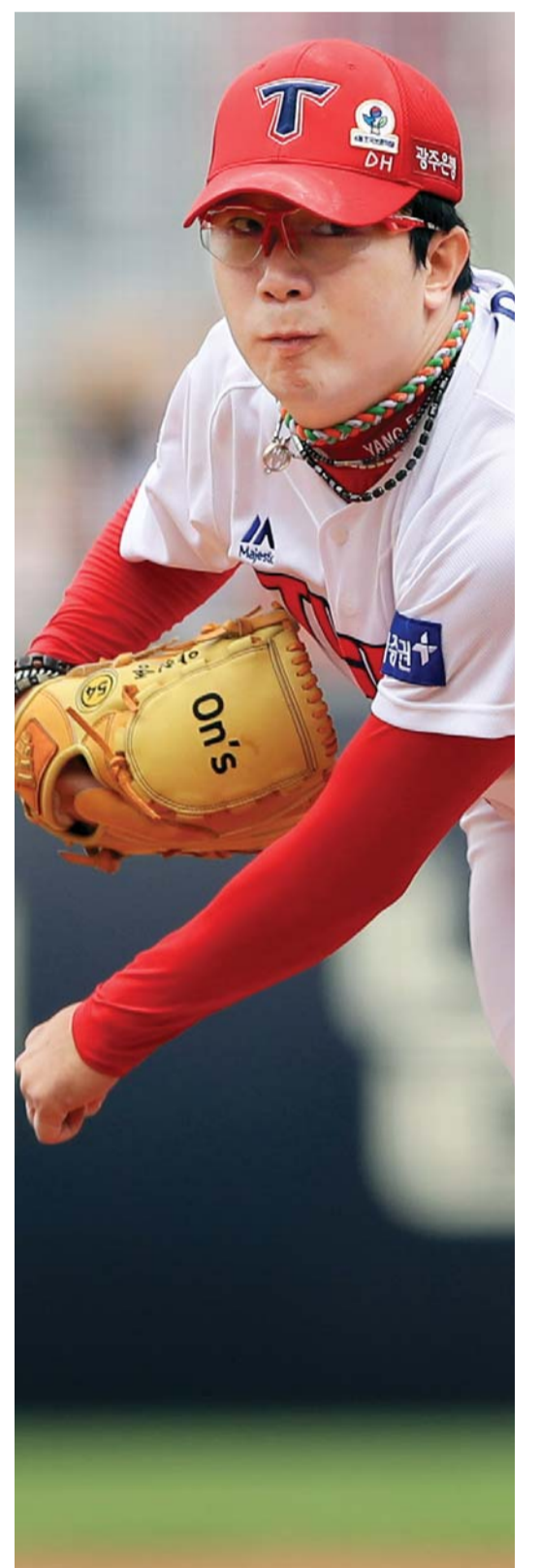


이창진

박찬호가 좌측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까지 향했다. 류승현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1사 1·2루, 투수 견제구가 뒤로 빠진 사이 박찬호가 3루로 향했다. 박찬호는 최형우의 좌익수 플라이 때 팀의 선취점을 기록했다. 이어 터커의 볼넷에 이어 또 다른 신에 자원인 이창진도 중전 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이명기와 한승택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KIA는 1회에만 4점을 만들었다. 2회에도 박찬호가 주목을 받았다. 1사에서 박찬호가 우측 선상으로 공을 보내 3루까지 내달렸다. 그리고 류승현의 우측 2루타가 이어지면서 박찬호가 다시 홈을 밟았다. 후배들의 공격 지원을 받은 양현종은 큰 위기 없이 4회를 넘겼다. 5회 양현종이 볼넷으로 처음 선두타자 진루를 허용했지만 1실점으로 막은 뒤 6회는 삼자범퇴였다.

하지만 7회 다시 한번 양현종이 볼넷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냈다. 양현종은 오재일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이흥련과 정수빈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1사 만루에 몰렸다. 양현종이 류지혁과의 5구 승부 끝에 투수 직선타를 만드는 것 같았지만, 글러브를 맞은 공이 2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내야안타가 됐다. 그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7-2. 만루 상황에서 양현종이 흡린 공동 6위 페르난데스(10개)와 마주했다. 공휴일을 맞아 많은 두산팬이 찾은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에서는 '병살'과 '흡린'이라는 엇갈린 구호가 터져나왔다. 볼 두 개를 연달아 던진 양현종이 3구째에 스트라이크를 넣었다. 양현종이 잠시 발을 푼 뒤 4구째 슬라이더를 던졌다. 가운데 높게 들어간 공을 놓치지

않고 페르난데스의 방망이가 벼락같이 움직였다. 다행히 우측 풀대를 비껴난 큰 파울. 그러나 이번에는 페르난데스가 장갑을 고쳐 끼면서 숨을 골랐다. 5구째 볼이 들어가면서 풀카운트가 됐고, 6구는 좌측 파울이었다. 그리고 7구째 바깥쪽 슬라이더에 페르난데스의 방망이가 힘없이 움직이면서, 2루수 앞으로 향한 4-6-3의 병살타가 기록됐다. 흐름을 내주지 않은 KIA는 이어진 7회말 대거 5점을 추가하면서 승기를 굳혔다. 개인 4연승을 달린 양현종은 "타자들이 점수 잘 뽑아줘서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다. 5월 보다는 밸런스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득점 지원도 좋았다"며 "(페르난데스와 승부 때) 병살타보다는 점수차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아웃카운트를 잡으려고 했던 게 운 좋게 병살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덕아웃 T 특특

▲제가 짧으니까 = 류승현은 6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3루수 최원준, 유격수 박찬호 등 짧은 선수들과 내야에 자리한 류승현은 "공을 열심히 받아야 하는 자리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제가 짧으니까 열심히 잡아야 한다"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류승현은 프로필상 키가 176cm. 일반적인 1루수들보다는 키가 작은 편이다. 경기가 끝난 후 류승현은 "최선을 다해서 잡기는 했는데"라면서 머쓱하게 웃었다. 이날 KIA가 4

베이스서 발 떨어진 류승현 "짧은걸 어떡해요"

-0으로 앞선 2회초 1사에서 유격수 박찬호가 2루를 빠져나가는 두산 최주환의 타구를 낚아채 1루로 송구했지만, 류승현의 발이 베이스에서 살짝 떨어지면서 내야안타로 기록됐다. ▲짧은 걸 어떻게 해요 = 류승현의 발이 한뼘 부족해 아웃을 만들지 못했던 박찬호. 그는 "승현이가 짧은 걸 어떻게 해요. 길이가 저 정도만 됐어도 됐는데"라며 웃은 뒤 "제가 잘 던졌어야죠. 제가 못 던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 전 "오늘 두고 보세요.

우리 팀 잘할 겁니다"라고 큰소리를 쳤던 박찬호는 예고대로 사이클링 히트에 흡린 하나 부족한 3안타 경기를 했다. "몸쪽으로 조금만 왔으면 공을 넘겼다. (흡린을 못친게) 아쉽다"며 웃음을 터트린 박찬호는 "(지난주 경기를) 쉬면서 좋았을 때 어땠는지 그걸 많이 생각했다. 운동 방법도 변화를 줬다. 한번 (슬럼프를) 겪었는데 지금 겪었던 것처럼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게 7, 8월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위가 좋지 않아서 = 새로운 선발 차명진은 지난 5일 두산을 상대로 세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섰다. 앞선 한화와의 등판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세 번째 선발 등판은 4이닝 5피안타 2사구 1탈삼진 3실점(2자책점)으로 마무리됐다. 차명진은 "5회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 게 아쉽다. 내가 더 잘 던져야 했는데 구위가 좋지 못했다. 스피드보다는 공 구위가 문제였다"며 "다음 등판은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흥식 감독대행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다음 등판에서도 차명진을 선발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소연 vs 르소메르 개막전 주인공은?

내일 새벽 여자축구 월드컵...한국, 개최국 프랑스와 첫 대결

오는 8일(한국시간 새벽 4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의 서막을 알리며 격돌하는 한국과 개최국 프랑스의 개막전은 두 팀의 '에이스' 대결로 관심을 끈다. 한국 여자축구의 '아이콘' 지소연(28·첼시)과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외제니 르소메르(30·올랭피크 리옹)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이어 월드컵에서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홈 팬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우승 후보 프랑스의 골문을 노리는 지소연은 다른 수석야가 필요 없는 한국 여자축구의 선구자다. 일본 실업축구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낸 뒤 2014년 첼시에 입단.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에 진출해 적적을 남겼다. 2014-2015시즌엔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 '올해의 여자 선수'에 선정되는 등 맹활약하며 유럽 무대에서도 기량을 인정받았다.

15세 249일이던 2006년 10월 피스퀀컵 국제여자축구대회를 통해 성인 대표로 데뷔, 남녀를 통틀어 최연소 A매치 데뷔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한 그녀는 통산 115경기 54골로 한국 여자축구 A매치 최다 골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5년 캐나다 대회에 이어 그의 두 번째 월드컵이다. 당시 한국은 사상 첫 본선 조별리그 통과를 달성했지만, 지소연 개인에게는 마음의 빛이 남는 대회이기도 하다. 허벅지 부상의 여파로 프랑스와의 16강전에 결장한 채 0-3 패배를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당시 두 골을 폭발해 프랑스의 승리를 이끌었던 르소메르가 이번 대회에도 출전, 한국과의 개막전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161cm로 키는 크지 않지만 탁월한 결정력으로 정평이 난 르소메르는 2008년 20세 이하(U-20) 월드컵 등 연령별 대표를 차곡차곡 거쳐 2009년부터 성인 대표로 뛰었다. A매치 기록은 159경기 74골이다. 챔피언스리그에서만 6차례 우승한 명문 리옹에서도 2010년부터 9시즌째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각종 대회를 통틀어 163골을 남겼다. /연합뉴스



지소연

'정정용 지략' 4강 신화 재현할까

'U20 월드컵' 한국, 9일 세네갈전 하루 덜 쉬고 경기...체력회복 관건

정정용 감독의 '지략'이 '1983년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을 일궈낼지 주목된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오는 9일 새벽 3시30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에서 세네갈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을 치른다. 세네갈은 전력상 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세네갈은 이번 대회 초반 포르투갈,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연달아 탈락하면서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전력면에서 세네갈은 4경기동안 1실점만 허용하는 등 탄탄한 수비력을 갖춘데다 공격진에는 한 방이 있는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4골을 기록하며 골결정력을 선보인 아마두 사나와 프랑스 메스에서 2시즌 연속 풀타임 활약한 이브라힘 나니네도 경쟁대상 1호다. 희소식도 있다. 세네갈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주전 미드필더 디온 로피가 경고누적(2장)으로 한국

전 결장이 확정됐다. 반면 한국은 지난 4경기 동안 오세훈, 이강인, 전세진(수원), 이재의, 등이 옐로카드 1장을 받았지만 8강에 진출해 소멸됐다. 세네갈전 승리의 관건은 체력회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달 25일 포르투갈전을 시작으로 11일 동안 4경기를 치렀다. 지난 5일에는 일본과 경기를 펼친 루블린에서 400km 떨어진 비엘스코-비아와로 이동하느라 하루를 다 썼다. 에이스 이강인(발렌시아)도 35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첫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을 넣으며 고군분투한 오세훈(아산무궁화FC)의 체력회복도 급선무다. 이런 상황에서 정정용 감독에게 다시 한번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본전에서 후반 전술변화로 승리의 발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한 수 위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네갈전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 관전 포인트다. /김현영 기자 young@